

[기획]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⑧ 재고용 고대하는 베트남 젊은이들



반혜(왼쪽)씨가 한국 재입국을 앞두고 베트남 하띠이성의 고향집에서 아버지 응엔 반가(63)씨, 어머니 풍 티첸(53)씨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내무기자 mjna@kwangju.co.kr

성실로 쌓은 신뢰... '제2의 코리안 드림' 약속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앞으로 3년간 더욱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겁니다.”

베트남 하띠이성의 응엔 반혜(25)씨 집에서는 요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반혜씨가 최근 국내 사업주와의 재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3년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혜씨는 지난 2005년 7월 비전문취업(E-9)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경기도의 제조업체 3곳에서 맡았던 일에 매달린 끝에 꿈에도 그리던 재계약에 성공했다.

반혜씨는 “장래의 꿈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 것이 한국 재입국의 기회를 잡게 된 것 같다”며 “고향 마을에 새 집을 짓고 정비소도 차리기 위해선 한국에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혜씨의 한국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반혜씨는 한국입국 후 경기도 화성의 한 주물공장에 취업한 후 갖은 고생을 겪었다. 그가 하루 12시간 가량 일하고 받은 돈은 매달 90만원 안팎. 월급을 받는 즉시 65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20~25만원을 쪼개 생활비로 썼다. 돈이 떨어지면 저녁은 굶기 일쑤였다.

혹독한 주위도 그를 괴롭혔다. 베트남과는 달리 쌀쌀한 날씨 탓에 겨울철만 되면 작업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묵돈 마련 금의환향’ 재계약에 달려

외국인 노동자 100명 중 8명만이 성공

반혜씨는 “하루는 너무 추워서 일을 나가지 못한 채 종일 숙소에서 떨기도 했다”면서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약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반혜씨는 인근의 자동차부품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이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일에만 전념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도 120만 원으로 높아졌다.

결국 그가 고향으로 가져온 돈은 총 2만4천달러(한화 2천400만원). 수면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각종 잔업을 도맡은 결과 고향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묵돈’을 마련한 것이다.

반혜씨는 “3년 뒤 베트남으로 돌아오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고치는 수리점을 운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동네 후배들에게도 ‘한국에서 6~7년 정도만 고생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혜씨처럼 재고용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사

업주와 재계약을 맺기 위해선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1만1천904명. 이 가운데 8천822명이 한국에 재입국했다. 외국인노동자 100명 가운데 8명만이 재계약에 성공하는 셈이다. 그나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의 재고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가운데 올해는 2만2천451명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6천856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4천명) ▲필리핀(3천814명) ▲몽골(2천833명) ▲인도네시아(2천665명) ▲스리랑카(2천283명) 등이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만5천748명, 2만8천215명이 본국 입국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공장은 “현재는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과 필리핀 노동자들도 재고용 비중이 3분의 1을 밑돌고 있다”며 “재고용자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숙달된 업무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 생활 마치고 의류봉제업체 공장장 된 잔 반딘 씨



반딘(왼쪽)씨가 하띠이성의 대형 의류봉제인 태평양물산(주) 공장에서 종업원에게 소재별 봉제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내무기자 mjna@kwangju.co.kr

품질·기계관리 척척 ‘만물박사’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행을 택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시골 농부의 삶에 만족해야 했을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하띠이성에는 ‘코리안드림’을 이룬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있다. 주인공은 태평양물산(주)의 공장장인 잔 반딘(38)씨.

반딘씨에게 있어 한국은 ‘약속의 땅’이다. 7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자그마한 가난에서 벗어난 데다 아내까지 만났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

대로 한국인 7년간 한국생활 가난 벗고 아내까지 얻어 이 운영하는 의류봉제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

1,300여명 직원 통솔 미·유럽 수출의류 생산 공장 내에서 반딘씨는 ‘만물 박사’로 통한다. 1천300여명에 달하는 직원 운용은 물론, 한국어 번역 및 통역, 기계 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전량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의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도 반딘씨의 몫이다.

반딘씨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베트남 현지 송출회사에 4천달러(한화 400만원)를 주고 무작정 한국으로 향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권유에 의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국생활의 현실은 냉혹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 취업했지만 당시 산업연수생의 기본급인 28만원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반딘씨는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이를 악물었다.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입국 당시의 빚을 갚기 위해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심지어 두 번째 직장인 전자부품업체에서는 하루 17시간이 넘도록 근무하기도 했다. 주·야간 근무를 도맡다보니 기계 점검과 수리도 그의 업무가 됐다. 이렇게 1년 정도가 지나자 반딘씨가 기계수리업체보다 잘 고친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반딘씨는 “베트남에서 전기·전자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이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비전문 노동자가 공장 기계를 고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근 회사들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잇따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딘씨의 근면함은 부인인 레킴(37)씨를 만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의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당시 대구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부인을 소개시켜준 것이다.

반딘씨는 “한국에서의 7년간은 돈과 행복을 모두 가져다준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저축한 돈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호치민과 하노이 중간지역에 봉제공장을 차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ulim Engineering' (유림정공(주)) featur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ices. Text includes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ba' (가발) hair products. Features a large '가발' (Wig) headline, '최신제품 70만원' (Newest product 70,000 won), and photos of three men. Text includes '초슬림!!' (Ultra-slim!!) and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It will be your eternal companion that elevates your dignity and personality.)